



시민공론화위원회_2차 브리핑

✓ **보도일시**

2020. 6. 16.(화) 조간용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위 원 장		이 양 재 (☎ 010-5029-5455)
간 사		이 정 현 (☎ 010-3689-4342)
시민의숲1963추진단장	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총 매 수	2매	
사 진	유 ☐ 무 ☒	영 상 유 ☐ 무 ☒

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본격 추진!

- 6월 12일, 워크숍 형태의 제2차 회의 개최
- 도시계획과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시간 마라톤 회의 진행

- 전주시는 6월 12일 제2차 “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”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, 도시계획과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5시간에 걸친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.
- 시민공론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형태로 열린 제2차 회의는 사전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정현 간사(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)가 △ 공론화 추진 배경과 의제 및 쟁점을 소개했으며, 이어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과제를 수행중인 (주)동명기술공단에서 △도시계획 제도 및 대한방직 부지 현황 설명을 했으며, 이희진 위원((사)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)이 △시나리오워크숍 개념과 진행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이어서, 오후 안건 회의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 운영 용역에 대해 공론화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고려, 이후 추진 예정인 타운홀미팅 또는 공론조사 용역과 병합 추진이 논의됨에 따라 이를 보완·반영한 과업지시서를 다음 회의 시 재검토할 계획이다.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는 정책입안결정권자, 도시 관련 전문가, 기술산업관계자, 시민 등 30명 내외로 구성 예정이며, 구체적인 선정 분야와 기준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토론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. 마지막으로 언론과 시청 홈페이지에

회의 결과와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, 이와, 공론화 의제 등을 포함한 운영 세칙을 정하여 다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.

- 이양재 위원장은 “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배경과 쟁점, 전주시 도시기본·관리계획 및 교통 등 관련 계획, 시나리오워크숍 개념과 적용 방법, 계획 이득의 환수 방안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.”고 밝히면서 또한, “미래 대한방직 부지 활용의 바람직한 모습을 우선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된 후 공론조사를 통해 최적의 시나리오로 시민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차기 회의 시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- 다음 회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전체 합의에 따라 토요일인 6월 20일 9시 30분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.